

오순절

“오순절 날, 모든 신자들이 한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거센 폭풍 소리와 같은 소리가 들려왔고, 그들이 앉아 있던 집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자 불꽃이나 불의 혀처럼 보이는 것이 나타나 그들 각자에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해져, 성령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1-4

기독교 세계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 중요한 사건을 종교적 신앙의 기초로 인정합니다. 바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이 기적으로 태어나신 것,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 그리고 “사흘 만에” 신성한 영의 본성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기독교인에게 있어 지극히 중요한 네 번째 사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마땅히 받아야 할 만큼 깊은 평가를 일반적으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 후 50일째 되는 날에 일어난 오순절입니다. 이번 고찰에서 우리의 목적은

기독교 신앙 역사 속에서 이 특별한 날의 기원, 배경,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의미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오순절(Pentecost)”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단 세 번만 등장하며, 그리스어 단어인 만큼 신약성경에만 나타납니다. 가장 잘 알려진 용례는 서두에 인용한 본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사도행전 20장 16절에서도 사용됩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아서 에베소를 우회하여 배를 타고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가능하면 오순절 날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고자 서둘렀기 때문입니다.” 이 단어가 마지막으로 사용된 곳은 고린도전서 16장 8절입니다. “나는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러 있겠다.” 이 두 구절에서 오순절은 사도행전 2장에 묘사된 성령 강림이라는 주목할 만한 사건 그 이상이었다는 점이 암시됩니다. 오순절은 구약성경에 기록된 유대인의 절기 중 하나로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구약의 절기

신약 시대에 오순절로 알려지게 된 것은 이스라엘의 세 가지 연례 절기 중 하나였습니다. 구약성경에서는 이 절기를 “수확절”과 “칠칠절”이라는 두 가지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16절에서는

‘수확절’이라는 이름으로 이 절기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일 년에 세 번 나를 위하여 절기를 지키라. 너는 무교절을 지키고... 또 추수절[오순절], 곧 밭에 뿌린 네 수고의 첫 열매를 바치는 절기와, 해가 끝날 무렵 밭에서 네 수고의 열매를 거두었을 때 지키는 수확절을 지키라.”

이 명절에 대한 또 다른 언급은 신명기 16장 9, 10, 16절에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를 ‘칠칠절’이라고 부릅니다. “수확철에 곡식을 처음 베기 시작할 때부터 일곱 주를 세어라. 그리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기리기 위해 추수절을 지키라. 그분께 받은 복에 비례하여 자원 예물을 드리라. ...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해마다 이 세 절기, 곧 무교절과 추수절과 초막절을 지켜야 한다. 이 절기들 마다 모든 남자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나아가야 하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준비하지 않고는 그분 앞에 나아가지 말아야 한다.” 칠칠절은 출애굽기 34:22와 민수기 28:26-31의 두 곳에서도 언급됩니다.

레위기 23장은 오순절이 정확히 언제인지, 그 목적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수확절’과 ‘칠칠절’이라는 두 가지 이름으로 불렸는지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5-7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달 열네 날

저녁에 여호와와 유월절이 있다. 같은 달 15일은 무교절이다. ... 첫째 날[무교절의 첫째 날—첫째 달 15일]에는 너희가 거룩한 집회를 가져야 하며, 그 날에는 어떤 노역도 해서는 안 된다.” 이 무교절의 첫째 날은 “거룩한 집회”, 즉 특별한 안식일이 되어야 했습니다.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이 노역하지 않는 날이었습니다. 이 경우, 그것은 매주 일곱째 날인 안식일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거룩한 집회인 특별한 안식일이었습니다.

레위기 23장 10, 11절을 이어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소산을 거둘 때, 너희는 거둔 소산의 첫 열매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올지니라. 제사장은 그 단을 여호와 앞에서 흔들여 너희를 위하여 받아들여지게 할 것이니, 안식일 다음 날에 제사장이 그것을 흔들리라.” 이스라엘 곡식 수확의 첫 열매인 이 단이나 한 줌을 “흔드는” 일은, 앞서 언급했듯이 15일인 특별한 안식일 “다음 날”인 첫 달 16일에 행해야 했습니다.

레위기 23:15, 16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 다음 날, 곧 너희가 특별한 제물로 드릴 곡식 단을 가져오는 날[첫째 달 16일]부터 일곱 주[49일]를

세라. 일곱 번째 안식일 다음 날, 즉 50일 후까지 계속 세십시오. 그 때 여호와께 새 곡식 예물을 드릴 것입니다.” 이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칠칠절, 즉 추수절이었습니다. 이 절기가 ‘칠칠절’이라 불리는 이유는 첫 열매 단을 드린 날로부터 7주와 하루를 더 세어 날짜가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리스어 ‘펜테코스트(Pentecost)’는 ‘오십 번째 날’을 의미합니다. 유대인의 연도 계산법에 따라 오순절 날짜는 5월 하순에서 6월 상순 사이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레위기 23장의 계산에 따르면, 올해 오순절에 해당하는 날짜는 2026년 5월 23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절기의 목적

이 이스라엘의 절기는 수확의 첫 열매에 대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축제였으며, 이에 따라 ‘수확절’이라는 두 번째 이름도 붙게 되었다. 이는 특별한 수확이었다. 채소나 과일의 수확이 아니라 곡물, 특히 밀의 수확이었다. 이 수확의 첫 열매는 하나님께 바쳐졌다. 이 절기 동안 많은 제물이 드려졌다. 번제, 소제, 전제, 속죄제, 화목제 등이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은 밀 수확에 대한 감사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었습니다. 레위기 23:16-20

16절에 언급된 바와 같이, 이 절기의 특별한 제물은 “새 곡식 제물”이었습니다. 이 제물에 대해서는 레위기 23장 17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각 거처에서() 고운 밀가루로 만든 누룩을 넣은 두 덩이의 흔들 제물을 가져올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첫 열매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밀 수확의 첫 열매로 만든 두 덩이의 떡을 드려야 했다. 이 떡들은 풍성한 수확에 대한 감사와 헌사로 주님 앞에서 흔들어야 했다. 50일 전에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흔들어 드렸으나, 그때는 첫 열매 중 한 줌에 불과했다. 이제 그들은 본격적인 밀 수확을 시작했고, 방금 수확한 것으로 만든 두 덩이의 빵을 가져와 여호와께 드렸다. 그들의 수확은 이제 모든 밀이 다 모일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신약 성경과의 연관성

이스라엘의 추수절, 즉 칠칠절에 대해 자세히 다루는 이유는 이것이 신약성경의 오순절과 구체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먼저, 이 절기의 시기가 일치한다는 점을 주목한다. 앞서 레위기 23장 5절에서 인용했듯이, 첫 달 14일은 이스라엘의 유월절이었습니다. 신약성경에서 이는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더 큰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죽음과 일치합니다. (요한복음 1:29). 예수님의 죽음은 정확히 이 날짜에 일어났습니다. 다시 레위기 23장 10, 11절을 보면, 이틀 후인 첫 달 16일에 첫 열매의 단, 즉 한 줌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드렸습니다. 이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죽으신 지 이틀 후에 일어난 예수님의 부활과 일치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은 유대력 첫 달 14일의 일부, 15일 전체, 그리고 16일의 일부 동안 무덤에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16:21; 누가복음 9:22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20에서 예수님이 “잠든 자들의 첫 열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첫 열매의 단, 한 줌이었으니, 곧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영생으로 부활하신 바로 그 첫 번째 분이셨습니다. (골로새서 1:18). 이 첫 열매 단을 “흔드는” 상징적인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적 희생에 대한 하나님의 수용을 나타냈으며, 그 결과로 신성한 능력에 의해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첫 열매인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일곱 안식일과 하루, 즉 50일을 더하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오순절에 이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절기가 밀 수확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헌납의 날이었던 것처럼, 오순절은 더 큰 첫 열매, 즉 “영적인 밀”을 하나님께 바치는 헌납의 날이었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 교회는 첫 열매의 반열에 포함되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첫 열매의 반열에 속한 “첫 번째”이셨지만, 야고보서 1장 18절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교회 또한 “일종의 첫 열매”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 요한은 또한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첫 열매”라고 말하며, 그들을 “사람 중에서 구속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어린 양을 위한 첫 열매”라고 묘사합니다. 교회의 이러한 봉헌은 오순절에 시작되었으며, 그날 교회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그분께 봉헌된 것으로 상징적으로 흔들려 보여졌습니다.

오순절을 살펴보면, 이는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 세 가지 매우 중요하고 결정적인 사건들의 정점이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담을 대신하여 랜섬으로 죽으심으로 마련하신 랜섬의 대가였다. (디모데전서 2:5,6). 이 놀라운 사건들 중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이루어진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에베소서 1:19-21). 세 번째는

오순절, 즉 장차 세워질 교회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봉헌된 날이었습니다.

오순절

오순절을 둘러싼 사건들은 수없이 많다. 그것은 단순히 성령이 교회에 임하신 날만이 아니었다. 물론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으며, 그 혜택은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기쁘게 받아들여질 만한 헌신으로 바친 모든 이들에게까지 미쳐 왔다.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바친 채 다락방에 모인 그 120명의 제자들에게 오순절은 여러 가지 의미를 지녔습니다(사도행전 1:15).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드린 헌신을 받아들이셨음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눈앞에서 의롭다 함을 받았음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들의 희생의 삶이 시작될 것임을 의미했고, 성령에 의한 중생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5:1; 12:1; 베드로전서 1:3; 고린도후서 5:17

오순절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지대한 의미를 지녀 왔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이 시작된 것을 상징했습니다(빌립보서 3:14). 또한 오순절은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되도록 기름 부음을 받고 헌신된 것을 의미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9). 이는 그 제사장직의 각 예비 구성원에게, 다락방에 있던 사람들이 받았던 것들—즉, 그들의 헌신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 의롭다 하심, 희생의 시작, 그리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받을 기회가 이제 열렸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오순절 이후로, 왕 같은 제사장직의 각 예비 구성원은 그때 일어난 사건들 덕분에 그와 동일한 관계에 들어섰습니다.

오순절에 교회를 시작으로, 인간을 하나님과의 조화와 은혜로 되돌리는 과정이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실로 오순절은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랜섬의 대가에서 비롯된 혜택이 하나님에 의해 인류에게 귀속되었음을 보여주는 첫 번째 외적 증거였습니다. 로마서 4:16-25

성령

성령의 부어주심을 이해하는 것은 오순절의 완전한 의미를 파악하는 데 핵심입니다. 성령이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말해, 성령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능력과 영향력입니다. 성령은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므로, 그분의 능력과 영향력, 즉 성령 또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십니다.

그러나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성령에게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들의 새 삶에 생명의 불꽃을 불어넣고, 양육하며, 다스리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운 영향력과 능력으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고린도후서 5:17). “영(spirit)”이라는 단어는 그리스어 ‘프뉴마(pneuma)’에서 유래했으며 “숨”을 의미합니다. 기독교인에게 성령의 정의를 단순화하여 설명하자면, 그것은 육체에게 있어 생명의 숨결과 같은 것이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육체는 반드시 육체적인 생명의 숨결을 가져야 합니다. 만약 육체에서 숨결이 떠나면, 몇 분 안에 죽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운 영향력—이 없이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새 삶은 살아갈 수 없고, 발전할 수 없으며, 성숙해질 수 없습니다.

오순절의 성령

사도행전 2장은 성령의 강림과 관련하여 오순절 날에 일어난 일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2-4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거센 폭풍 소리와 같은 소리가 들려왔고, 그들이 앉아 있던 집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자 불꽃이나 불의 혀 같은 것이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머물렀습니다. 거기 있던 모든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하나님께서서는 왜 성령 강림을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 “거센 폭풍 소리와 같은 소리”, “불꽃이나 불의 혀처럼 보이는 것”, 그리고 “다른 언어들로 말함”과 같은 외적인 현상으로 나타내셨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그것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주는 증거였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때 예루살렘에는 온 천하 각국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명절 중 하나를 맞아 예루살렘으로 여행해 왔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사도들을 움직여 그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을 때(혹은 그들의 말이 이해되기 시작했을 때), 그것은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증거가

되었습니다(사도행전 2:5, 6). 많은 사람이 놀라워하며 이 일이 무슨 뜻인지 궁금해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사도들이 취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일어나 군중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선지자 요엘과 시편을 인용하며,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아름다운 증언을 전했습니다(사도행전 2:12-40). 그 증언의 결과는 사도행전 12:41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날에 약 삼천 명이 그들에게 더해졌다.”

둘째,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류 역사상 전례 없이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영향력의 증거였습니다. 이 능력은 사도들에게 특별한 방식으로 임하여 그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28-30에서 이러한 은사 중 일부를 “병 고치는 은사, 돕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방언의 은사... 기적을 행하는 은사”라고 밝혔습니다. 이 모든 것은 초기 교회와 사도들의 권위를 확립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주어진 성령의 외적인 은사들의 일부였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과 영향력을 엄청나게 드러낸 것이었으며, 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낸 것이었습니다.

더 큰 의미

이러한 능력의 발현이 아무리 비범하고, 은사들이 아무리 감동적이었으며, 하루 만에 3천 명의 새로운 신자들을 교회에 더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오순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오순절의 더 큰 의미는 성령의 주된 사역, 즉 내면적인 사역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 사역은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 개인 성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성장시키는 사역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27

오순절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성령에 의해 각 제자가 개인적으로 거듭난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은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앞 구절들에서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을 열거한 후, 그는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 ” 즉 “너희는 더 나은 은사들을 간절히 구하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더 훌륭한 길을 보여 주리라”고 말합니다. 이 “더 뛰어난 길”은 바로 다음 장인 고린도전서 13장의 주제였으며, 사도는 이 장에서 오로지 사랑이라는 성품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사랑은 성령의 열매의 총합이며,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생명의 성장이 묘사되어

있습니다(갈라디아서 5:22, 23). 이것이 바로 더 뛰어난 길이자, 성령의 더 뛰어난 역사이며, 오순절의 가장 큰 의미였습니다.

성령의 역사

바울이 사랑이라고 요약한 성령의 내적 사역은 신약성경의 많은 구절에서 암시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는 성령에 대한 상세한 논의가 담겨 있어,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많은 깨달음과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 장에서만 “성령” 또는 “영”이라는 표현이 약 20회나 언급됩니다. 여기서 묘사된 성령의 사역은 열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1. 로마서 8장 1, 2절은 성령을 “법”, 즉 생명의 법으로 언급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생명의 법인 성령을 가져야만 하며, 그렇지 않으면 새 피조물은 죽게 됩니다. 이 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이다.” 이 구절은 성령이 생명의 “법”이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자들을 그들이 이전에 속해 있던 다른 법, 즉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고도 말합니다.

2. 성령은 사람이 행하고 생각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힘입니다. 로마서 8:4-6은 이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로서,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을 생각하느니라. 육신을 따르는 것은 사망이요, 성령을 따르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3. 성령의 중생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골로새서 1:27)이라는 사상을 구현합니다. 로마서 8:9, 10은 이를 암시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는 것이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으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느니라.” 이 하나님의 성령, 또는 바울이 추가로 언급한 “그리스도의 영”은 반드시 그분의 제자들 “안”에 계셔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문자 그대로 우리 안에 계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계시고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는 것은 그분의 생명의 영, 곧 그분의 영향력입니다. 요한일서 2:27

4. 성령의 네 번째 사역은 로마서 8:11에 묘사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는 “생명을 주십니다” — 곧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진리를 이해하며, 받아들여질 만한 제물이 될 기회를 주시며, 결국 죽기까지 신실한 자들에게 “생명관”을 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0

5.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타락한 육체의 행실을 죽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로마서 8장 13절은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요, 그러나 성령으로 육체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고 말합니다.

6. 성령의 또 다른 사역은 로마서 8:14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니라.”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인을 인도하고 이끄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적 돌보심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좁은 길의 매 단계마다 그분의 백성과

함께하심으로써 이러한 돌보심을 이루십니다. 한 찬송가 작가는 이렇게 썼습니다. “빛 가운데 홀로 가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과 함께 어둠 속을 걸겠노라.”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삶을 인도하고 이끄시는 분이 바로 성령, 즉 그분의 섭리적인 영향력과 권능이시기 때문입니다.

7. 성령에 의한 중생은 자녀됨의 확신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은 “너희는 다시는 종의 영을 받아 두려워하게 된 것이 아니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는 양자의 영을 받았느니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얼마나 확고히 확신시켜 주시는지요!

8. 로마서 8장 16절은 “성령께서 우리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헌신으로 주님께 드린 우리의 영, 마음, 동기가 말하자면 하나님과 같은 ‘파장’에 있다는, 즉 성령과 함께 “증언”한다는 주장입니다. 이들이 함께 증언할 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서 의도하시는 것과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9. 성령께서는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동안 현세에서의 시련과 “신음”을 함께 겪지 않도록 막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이든 이루실 수 있으며, 아마도 성령을 통해 우리가 육신의 시련과 신음을 겪지 않도록 막으실 수도 있으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방식이 아닙니다. 성령의 이러한 면모는 로마서 8장 2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첫 열매를 받은 자로서, 아들의 신분을 얻게 될 것과 우리 몸의 구속을 간절히 기다리며 속으로 탄식하고 있습니다.”

10. 로마서 8장 26,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뜻[그리스어: 성향]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이라.” 성령께서는 우리의 영과 함께 증거하시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아버지께 기도하기 어려울 때나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 구절이 말하듯이,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중보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함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즉 새 피조물의 생명을 주는 능력을 고의로 저버리지 말라고 경고합니다(데살로니가전서 5:19). 우리는 이 점에 있어 조금이라도 고의적인 태도를 보일 때조차 경계해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30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영향력과 능력을 가능한 한 가장 충만하게 얻기 위해, 즉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에베소서 5:18) 힘써야 합니다. 그리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신실함으로, 우리는 오순절의 진정한 의미와, 희생과 고난, 그리고 하늘 아버지께 대한 봉사의 길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기로 삶을 바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그 축복을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